

## 호모 파버(Homo Faber)와 반(反)호모 파버(Homo Faber)

심상용(미술사학 박사, 미술평론)

이상준은 적어도 그 “현대문명을 극도로 유익하게 이용할 줄 아는 기술자적” 측면으로 인해 막스 프리쉬의 소설 『호모 파버』의 주인공인 발터 파버를 연상케 한다. 호모 파버의 라틴어는 ‘대장장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기술적인 인간’, 또는 ‘공작인’을 의미한다. 이상하게 현세적이고 산업적인 질료인 플라스틱의 사용, 그리고 합리적이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작업과정 등에서 더욱 이같은 뉘앙스에 근접한 것이 된다.

최근 한 극단이 올린 창작극의 제목은 <내친구 플라스틱>이었다. 어린이들에게 일상용품을 활용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였다. 요즘 아이들은 비운의 황세자비 다이아나는 몰라도, 플라스틱의 여왕 ‘바비’는 끔찍하게 여긴다. 이런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신제품 자동차나 핸드폰의 반질거리는 플라스틱을 촉감하면서 노스텔지어를 달래게 될 것이다. 플라스틱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자 리얼리티며, 생의 동료이자 존재의 보증이 되었다. 바로 이 플라스틱이 이상준의 언어체계에서 알파벳이다.

흥미롭게도 플라스틱에 안료를 넣으면 플라스틱적인 색이 나온다. 그 특유의 광택은 산업의 수혜라면 모를까, 결코 미학의 규범은 아닐 듯 하게, 당혹스러울 만큼 냉담하고 타산적인 인상을 띤다. 그 수명은 존재와 역사를 ‘거의’ 초월한다. 그것은 전통적인 그 어떤 질료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이상준의 ‘반미학’은 재료뿐 아니라 기술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REAL> 연작에서의 도금기법 같은 것이 그것이다. 산업에서 흘러온 이 고도의 ‘키치적 기술’은-대상을 더 좋은, 혹은 값비싼 것으로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내용물을 번쩍거리는 금속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사물의 정체를 은폐, 왜곡시키는 전략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가는 사물의 기표와 기의가 완전히 표리부동하다는 포스트모던적 인식을 재확인하고자 했을 것이다.

적어도 최근까지 그의 세계의 저변은 이같은 인식이었다. 그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전자제품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제목을 ‘interfake’로 했을 때도 정확하게 그랬다.(interfake 는 interface 의 c 를 k 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그것은 사물을 탈코드화(decoding)하는, 탈영역화하고 표류시키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전략적 수행과 일치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로 이같은 은폐, 왜곡, 표류에 기대게 했던 것은 그같은 기체들이 온갖 종류의 억압들로부터 욕망을 탈주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기초는 최근의 <Phantom signal>에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중심개념은 주변에 홍수를 이루는 여러 타이포와 로고들을 가지고 와 그 의미를 지워내는 것, 작가를 따르자면 ‘촛점흐리기’의 일환이다.

그러나 그 초점 흐리기와 의미의 삭제의 결과들이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예컨대 그가 <cloud>에서 사용한 개념인 '캐릭터화'되어 가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을 때 그것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사물의 표류가 아니라 전이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로 가해지는 '욕망의 억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